

강류사료부족하나

배합사료가격에 영향없을듯

—강류사료의 합리적인 이용이 필요—

조 홍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2월하순 부터 소맥분 수요의 감퇴로 소맥가공량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소맥피 생산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다 정부 관리양곡부산물인 탈지강이나 맥강생산량도 크게 줄어 들어 3월에는 강류사료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밖에 어분이나 국내산 식물성박류수급에도 차질이 야기되고 있어 일부 양축가들은 이와같이 강류사료 및 단백질사료의 품귀현상이 혹시 배합 사료가격인상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마저 갖어오게 하였으나, 다행히도 국제적으로 사료곡물이나 대두시세가 당분간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사료용 옥수수는 8월중순까지 사용할 물량을 구매하여 매월 필요한 물량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국내에 도착되고 있으므로 배합사료가격에 그다지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하여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의 판매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판매방법을 현실화하기로 하였으나 실수요자증명의 남발과 중간상인의 개재, 소맥가공량의 감소로 인한 소맥피공급부족 등 여건변동으로 소맥가공 부산물(소맥피)의 균형 있는 분배와 가격안정 및 수급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10일자로 종전 현실화방안을 폐지하고 사료관리법 제 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부산물 매도요령을 개정하므로써 부산물 생산량 전망을 정부가 지정한 용도에 판매토록 하였으며 동부산물은 전업규모양축가에 한하여 농축사료를 구입하였을 경우 농축사료구입량의 60%범위내에서 농축협에서 배정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양계용 및 소, 돼지 부업양축용은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하도록 배합사료 및 강류사료의 공급방향을 설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아서 양축경영에 참고하시길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1 배합사료생산추세

1975년도 배합사료총생산량은 1974년도 대비 2.8%가 감소한 900,995톤을 생산하였으며 1974년 대비 상반기에는 1.9%가 감소한 421,783톤을 생산하였고 하반기에는 3.7%가 감소한 479,212톤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하여 13.6%가 증가하였으나 1974년도 하반기 생산량이 상반기생산량에 비하여 15.7%가 증가한데 비하면 다소 생산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 1월분 배합사료생산량을 1975년 1월 생산량과 대비하면 33%가 증가하였으나 1975년 12월 생산량과 대비하면 4%가 감소하고 또한 농수산부의 금년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계획량 10만톤에 비한다면 10%가 감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2월의 배합사료생산량은 1월수준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월평균 생산량은 9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1975년도 생산량보다 금년도에는 20%가량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참조>

2. 주요단미사료 시세

배합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주요단미사료의

〈표 1〉

배합사료 생산실적 대비

〈가〉 전년도 1월생산량 대비

단위 : 톤

구 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산란용	육계용	소 계					
75. 1	6,93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76. 1	11,119	38,664	6,286	56,069	13,227	15,793	3,378	1,225	89,692
대 비	160	147	139	149	108	119	99	119	133

〈나〉 전월 (75.12월)실적과의 비교

단위 : 톤

구 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기 타	계
	육추용	산란용	육계용	소 계					
75.12	12,527	41,466	7,739	61,732	13,392	14,119	2,720	1,218	93,181
76. 1	11,119	38,664	6,286	56,069	13,227	15,793	3,378	1,225	89,692
대 비	89	93	81	91	99	112	124	101	96

최근의 시세를 살펴 보면 〈표 2〉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시세는 보합 내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주요단미사료 시세는 매우 가격변동이 심함을 알 수 있다.

가.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 시세를 보면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옥수수 의 경우 5월 선적분이 1월 13일 현재 \$132 이던 것이 3월 18일 현재 \$127로 톤당 \$5이 하락되었고 7월 선적분이 \$132이던 것이 3월 18일 현재 \$129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두 박은 3월 18일 현재 5월선적이 \$189 7월 선적분이 \$190로 약간씩 하락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사상 최대량의 대두재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어 대두 및 대두박의 국제적 수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다. 또한 소맥시세도 1월 13일~3월 18일 현재 5월 선적분이 \$155~168 7월 선적분이 \$156~\$170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3월 18일 현재 5~7월 선적분이 \$156~\$159로 매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 의 기상조건만 계속 양호하게 진행된다면 별 다른 가격변동 없이 계속 안정된 시세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단위 : \$/C&F톤

품명 거래일자	옥 수 수		대 두 박		소 맥	
	5	7	5	7	5	7
1/13	132	132	—	—	155	156
2/12	130	131	191	194	166	166
2/17	129	130	192	195	167	168
2/20	129	130	195	197	162	163
2/25	129	130	191	194	168	170
3/ 2	128	129	190	193	160	162
3/ 5	129	130				
3/10	129	130	189	190	156	159
3/16	127	127				
3/18	127	129				

나. 국내주요단미사료시세

국내 주요단미사료 시세를 보면〈표 3〉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75.3.15현재 시세를 전년 동일자 시세와 대비할 경우 도입옥수수 22.1%, 국산옥수수 1.8%, 대두박 8.3%가 하락한 반면 소맥피 118.1%, 어분상품 35.7%, 어분중품 20.8%, 채종박 13.0%, 옥수수구루멘 4.2% 그리고 탈지강은 4.2%가 각각 앙등하였고 전월 동일자인 2월 15일 현재 시세와 대비하여 보면 어분상품 21.5%, 중품 5.5%, 탈지강 5.7%가 각각 앙등하고 대두박 임박 호마박 및 채종박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국내 박류가격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원인은 현재 대두박이 kg당 113원(진해, 공장도가격)에 충분한 량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부족분의 일부가 대두박으로 대체되며 또한 대두박과 국산박류가격과의 차액은 값이 비교적 저렴한 옥수수로 대체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고 가격상의 변동도 그다지 없으므로 보합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어분가격이 크게 뛰었으나 연안어업이 차츰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4월부터는 어분의 유통량이 증가하여 어분을 비롯한 모든 단백질사료 사정은 완화되리라 기대된다. 이밖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소맥 피등 강피류 사료사정을 들 수 있다. 월간 소맥가공량은 월평균 13만톤 이상이 최소한 가공되어야 제분공장의 경영을 위해서나 사료수요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월의 소맥가공량은 10만톤 3월가공예상량은 8만톤이고 현재 추세대로 생산된다면 4월에 10만톤 5월에도 10만톤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제분업계의 추산이다. 그러므로 농수산부에서는 3. 10일자로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매도요령을 개정

실시키로 하였다. 따라서 농수산부가 이와같이 1975. 12. 31 이전에 실시하여 왔던 동부산물의 매도요령을 다시 시행키로 한것은 첫째, 앞으로 공급량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와 둘째 공급량 감소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에 의한 중간상인개재가능성에 의한 혼란방지 셋째, 자급사료증산에 의한 강류의존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3. 원료확보 현황

진호에서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4월부터 국내에 도착된 옥수수총량은 14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7월초까지 건물량이 도입되어 적어도 8월중순까지는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두박사정을 보면 3월20일 현재 대두박 재고 1천톤, 대두재고 약 2천톤, 3월25일경 도착예정 대두 14,000톤을 합하면 대두박으로 환산하여 13,000톤의 대두박이 확보된 셈이고 월간 소요량을 4천톤으로 가정할 때 6월중순까지는 충분히 공급가능하리라 보며 또한 4월부터 연안어업에서 어분이 생산되어 가격이 하락한다면 단백질수요가 일부 어분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다소 배합사료원료간에 상호대체시 어느정도의 가격차이는 있겠으나 어느 범위내에서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현사태로 보아 단백질 사료수급상의 긴박감은 어느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요단미 사료 시세 단위: 원/kg

종 류	서울지방도매시세			1976. 3. 15 대비 %	
	75	76	76	75	76
	3/15	2/15	3/15	3/15	2/15
옥수수(도입)	96.53	75.22	75.22	△22.1	0
" (국산)	95	95	93.30	△1.8	△1.8
대 두 박	127	116.50	116.50	△8.3	0
입 박	95	97.5	97	2.1	△0.5
호 마 박	95	97.50	96	1.1	△1.0
채 중 박	77	85.50	87	13.0	1.8
옥수수배아박	60	65	—	—	—
옥수수구루틴	120	125	125	4.2	0
맥 강	43	—	—	—	—
탈 지 강	48	47.30	50	4.2	5.7
소 맥 피	21	45.80	45.80	118.1	0
어 분 상 품	150	167.50	203.50	35.7	21.5
" 중 품	120	137.50	145	20.8	5.5

4.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수급방향

가.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 매도요령

농수산부에서는 3월 10일자로 종전의 민수도입소맥부산물 판매지침을 폐지하고 동부산물 매도요령을 제정 시달하였다. 동 지시 내용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장은 회원의 배합사료제조용 및 일반양축가용의 동부산물을 적기인수하여 동요령이 정한바에 따라 판매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되 인수량의 일부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적기인수로 제분 공장의 부산물이 체화됨이 없이 양축가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초지 및 자급사료기반이 없는 낙농가에 대하여는 77년 1월 1일 부터 일체 배정을 중지키로 하였음을 양축가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사료협회장은 회원공장의 배합사료생산실적을 감안하여 동 부산물을 공급하되 3개월령 이상된 소, 돼지용 사료는 농축사료 생산량과 동일량 범위내의 완전배합사료 소요량을 감안하여 공급토록 하였으며 농축사료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시 발급하는 표준계산서에 농축사료라는 것을 명시하여 양축가가 농축협에서 강피류를 인수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시달하였는바 동 부산물의 매도요령을 간추려 소개드리면 아래와 같다. 단 이와같은 매도요령은 양계가 여러분에게 직접 관련은 없겠으나 양돈이나 낙농 및 비육우 사업을 겸하시는분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소개드리는 바이다.

내용 요약

- 1) 목 적 : 사료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
- 2) 부산물의 범위 : 민수도입소맥의 가공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소맥분 : 부산물 수율 20% 이상 밀쌀부산물 수율 17.7% 이상)
- 3) 판매가격 : 36kg들이 포장당 1,520원(등의분 말분 또는 배아등은 소맥세에 준함)
- 4) 월간 소맥가공기준 : 13만톤(부산물 생산량 26,000톤)
- 5) 부산물 배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립기관 및 한국마사회용
 - 2순위 : 배합사료 원료용
 - 3순위 : 주정용 의약품제조용 및 동물약품제조용등 공업용
 - 4순위 : 농협중앙회를 통한 일반양축가 단미용
- 6) 농촌협의 판매방법과 가격
 - 가) 판매 우선순위
 - ① 초지확보등 자급사료생산양축가에게 최우선 지원 정부의 낙농지방확산정책에 의한
 - ② 축산물 수출군납 양축가
 - ③ 사회특수시책 및 시도의 특수시책사업

④ 양계 및 3개월령 미만의 돼지와 소는 배합사료를 이용토록 배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정판매 및 판매제한

젖소 및 한우(비육우 포함) 7두(3개월령 이상에 한함). 또는 돼지 10두(3개월 이상에 한함)이상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수교하는 관활세무서 발행 표준계산서상의 농축사료 구입량을 확인하여 60%이내를 판매함.

다) 취급수수료 : 2%이내

7) 실수요자별 배정내역

① 국공립기관	26,370대 (3.6%)
② 배합사료용	440,670대 (60.5%)
사료협회공장	376,000대 (51.6%)
농협사료공장	44,000대 (6.0%)
기 타	20,670대 (2.9%)
③ 공업용	26,900대 (3.7%)
④ 농협(단미사료용)	234,184대 (32.2%)
계	728,124대 (100%)

나. 사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권장

농수산부에서는 상당수의 양축가가 사양기술의 부족과 사료효율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강류사료 편중이용의 사양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사료자원의 낭비는 물론 사료파동의 유발과 소득감소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계몽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부의 부산물(강류사료) 및 배합사료의 공급방향을 잘 알아서 양축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어진다.

1) 불합리한 가축사양 방식

- 강류사료의 과용
- 배합사료에 강류를 더 첨가하는예
- 초지없는 축우사육
- 사료의 자급대책없는 불안한 양축경영

2) 불합리한 가축사육이 주는 손실

- 사료효율의 감퇴와 자원의 낭비
- 영양수준 불균형에 의한 성장 지연
- 사육기간연장에 의한 사육비의 증가
- 가축의 경제적 수명 단축(특히 젖소)

3) 정부의 강류시책

가) 닭 및 3개월령 미만의 어린소와 어린 돼지는 효율높은 배합사료를 이용토록 하고 강류공급을 일체 중단한다.

나) 3개월령 이상의 돼지 및 소에 대하여는 그 공급을 다음기준에 의해 제한한다.

○ 전업규모양축가에 대하여 농축사료 구입량의 60% 범위내에서 강류사료 공급

○ 부업규모양축가(3개월령 이상된 돼지 9두이하 또는 소 6두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배합사료를 이용토록 한다.

○ 강류사료의 두당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소요강류사료량의 60%미만으로 한다.

젖소(3~6월)	12kg
젖소(7개월이상)	20kg
한우(3개월이상)	16kg
돼지(3~4개월미만)	12kg
돼지(4~5개월미만)	20kg
돼지(5개월이상)	28kg

다) 배정제한(낙농가 해당)

초지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거나 조사료 확보가 아니된 농가는 77년 1월 1일 부터 강류사료를 일체 공급 중지 한다.

라) 배합사료에 강류배합을 제한

- 양계사료 : 15%미만
- 소, 돼지사료 : 3개월령 이상 : 50%미만
3개월령 이하 : 35%미만

마) 완전배합사료 생산제한

3개월령 이상의 돼지와 소사료는 농축사료 생산판매량의 50%미만

5. 배합사료가격 전망

현재 확보된 원료사정이나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및 국내 주요단미사료의 시세와 수급사정을 감안할 때 주원료인 옥수수, 8월중순까지 사용 가능하고 대두박이 6월중순까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으며 또한 소맥피 판매제도가 개선되어 우선순위에 의거 배합사료용 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양계용 배합 사료의 경우 거의 70%의 원료가 확보된 셈이고 잔여 30%는 내국자재로 충당되어야 하나 어획기간이 닳쳐왔으며, 패분등 칼슘제의 공급이 순조롭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완화되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강류 및 단백질사료의 수급이 단시일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우므로 일부제품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또는 소폭적인 원가상승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가격조정은 불가피한 사례도 있겠으나 이와같은 변동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변동일 것이므로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자원고 모집 ☆

월간양계 편집부에서는 애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양계경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 새로운 사양방법 혹은 기술
- 최신 해외논문
- 양계경영체험수기
- 기타

위원고는 매달 15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바랍니다.

- 1)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주시요.
- 2) 고유명사등은 꼭바로 표시해주시요.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편집부 전화 22-3571-2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